

“건전성·내부통제·미래먹거리로 성장 기반 마련”

제34대 신협중앙회장에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이사장
“현장·조합원 중심 신뢰 회복··지역 신협 버팀목 될 것”

제34대 신협중앙회장에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이사장이 당선되면서, 조합 관리·통제 중심이었던 중앙회 운영 기조가 현장 지원과 건전성 회복 중심으로 전환 될지 주목된다.

고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신협의 위기는 책상이 아닌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조를 내세우며, 중앙회가 조합을 관리·통제하는 조직이 아니라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최우선 과제로는 건전성 회복과 내부통제 강화,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제시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경영정상화 지원자금 지원 요건 완화 △상환준비금 잉여금 일부를 활용 한 조합 출자 및 자본 확충 지원 △자본

잠식 조합을 대상으로 한 연계대출과 여신형 실적상품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규 대손충당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칭) 매칭 충당금 펀드’ 도입 구상도 밝혔다.

부실채권(NPL)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NPL 자회사를 자산관리회사(AMC) 성격으로 전환해 장기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사후정산을 통해 발생한 초과이익을 조합에 환원하는 구조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예금자보호기금 역시 사후 보호에 그치지 않고, 조합 건전화와 자본 확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놔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순회감독제도 활성화, 10개 신협 단위의 그룹 관리 체계 도입, 전담제 제도를 통한 상시



7일 대전 신협중앙 연수원에서 치러진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고영철 후보가 당선됐다

점검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협중앙연수원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여신 전문인력 양성, 지역본부 심사역제도 도입 등 여신 심사 역량 강화도 주

요 과제로 꼽았다.

고영철 당선인은 “신협이 다시 현장과 조합원 중심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성과 성장 기반을 함께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회는 지역 신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한다”고 말했다.

7일 첫 경선 직선제로 치러진 제34대

중앙회장 선거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했으며, 선거인단은 전국 신협 이사장 862명과 현 중앙회장 1명 등 총 863명으로 구성됐다.

총투표수는 784표로, 고 당선인은 301표(득표율 38.4%)를 얻어 경쟁 후보들을 제치고 회장직에 올랐다.

고 당선인은 다음달 말 입기가 만료되는 김윤식 현 회장에 이어, 3월 1일부터 2030년 2월까지 4년간 신협중앙회를 이끌게 된다. 고 당선인은 조선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 광주문화신협에서 실무책임자, 상임이사, 이사장을 두루 역임한 대표적인 현장형 금융인이다. 고 이사장이 이끄는 광주문화신협은 전국 신협 가운데 자산 규모 상위권(2위)에 올라 있으며, 지역경제의 핵심 금융축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부터는 신협중앙회 이사로 활동하며 중앙회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해 왔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아틀라스·스팟...현대차그룹, AI 로봇 기술 총집결

라스베이거스 ‘CES 2026’

차세대 아틀라스 모델 전시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충전

‘주차 로봇’ EV6 주차 시연

현대차그룹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 참가해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선도할 핵심 제품과 기술을 대거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은 9일(현지시간)까지 진행되는 CES 2026 기간 동안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웨스트 홀에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그룹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다.

특히 차세대 아틀라스, 스팟, 모베드 등 실물 로봇 전시와 함께 고객의 일상과 근무 환경에서의 구체적인 활용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피지컬 AI가 가져올 변화상을 체험·시연 중심 전시로 구현했다.

AI 로보틱스 연구 환경을 전시 공간으로 구현한 ‘테크랩(Tech Lab)’에서는 향후 AI 로보틱스 생태계의 핵심이 될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은 미래 제품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제작된 초기 모델로, 360도 회전할 수 있는 관절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작업 현장에서 완전한 자율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테크랩에서는 시연을 통해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이 서열 작업(1)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번 CES 2026에서 최초로 공개된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은 보스턴다이나믹스가 그동안 쌓아



현대차그룹은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CES 2026 기간 동안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웨스트 홀에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그룹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다. 왼쪽부터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

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 학습 능력과 어느 작업 환경에서나 적용 가능한 유연성을 탑재해 실제 제조 현장에서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모델이다.

개발형 모델은 대부분의 관절이 완전히 회전할 수 있고 사람과 유사한 크기의 손에 촉각 센서를 탑재한 것뿐만 아니라 360도 카메라를 통해 모든 방향을 인식할 수 있어 주변 감지가 용이하다.

또 최대 50kg의 무게를 들어 올릴 힘을 가지고 있고 2.3m 높이까지 도달할 수 있다. 내구성이 뛰어나 -20℃에서 40℃의 극한 환경에서도 완전한 성능을 발휘하고 방수 기능을 갖춰 세척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자체 취급부터 정밀 조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으로서 대부분의 작업을 하루 이내에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

고,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스스로 충전소로 이동해 배터리를 교체하고 즉시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대차그룹은 휴머노이드가 향후 가장 큰 피지컬 AI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 보고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을 대량 생산해 산업 현장에 대규모 투입이 가능한 양산형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보스턴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오르비 AI’를 활용해 산업현장의 설비 관리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시연으로 선보였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모셔널과 함께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개발한 ‘로보택시’도 함께 선보였다.

아이오닉 5 로보택시에는 현대차그룹 하부 이내에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

이 적용됐으며, 이는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 4 수준이다. 레벨 4는 차량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해 운전하고, 비상 시에도 운전자가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아이오닉 5 로보택시는 모셔널의 첫 상업용 완전 무인 자율주행 차량으로, 올해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라이드 헤일링(ride-hailing) 서비스에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

또 이번 전시에서는 그룹사가 개발한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ACR)’을 통해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충전하는 과정과 현대차의 ‘주차 로봇’을 활용해 협소한 공간에 기아 EV6를 주차하는 과정을 시연으로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한전, CES 2026서 ‘미래 전기 거북선’ 띄운다
전통미학·첨단 전력기술 결합...국립중앙박물관 협업도

한국전력공사가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전통미학과 첨단 전력기술을 결합한 국가대표 전시관을 선보이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전력은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노스홀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참가해 ‘한전관’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한전은 이번 전시를 한국 대표 공기업이자 국가 전력산업을 상징하는 전시관으로 기획했다.

이번 CES에서 한전은 ‘오늘 만나는 내일의 전기(Power of Tomorrow, Discovered Today)’를 주제로 한국 고유의 역사·문화적 서사와 미래 전력기술을 결합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전기의 생산부터 송·배전, 소비에 이르는 전력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자체 개발 9대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공개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 전력기술의 경쟁력을 집중 조명한다.

전시는 관람객의 이해도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물임형 LED 실감영상, 융합형 배너 영상, 소통형 키오스크 기술 요약, 확장형 QR코드 기반 기술 상세 소개 등 4단계 체험 구조로 구성됐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 위기 속에서 전기가 수행할 역할과 미래 전력기술이 제시하는 해법을 상징적 스토리텔



한전이 CES 2026에서 설치한 ‘한전관’ 전경

링으로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전은 조선시대 혁신 기술의 상징인 거북선을 모티브로 전시관을 구성해 눈길을 끈다.

과거 국가 위기 극복의 상징이었던 거북선을 ‘미래 전기 거북선’으로 재해석해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오늘날의 도전에 한전의 에너지 신기술로 대응하겠다는 비전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업도 주목된다.

대한민국 전통·역사·문화유산이 지닌 혁신의 가치와 서사를 미래 전력기술과 결합한 전시 콘텐츠를 통해 기술 전시를 넘어 문화와 산업이 결합된 국가 브랜드 스토리를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

내달까지 신규 가입 시 5만원 쿠폰 지급

중소기업중앙회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다음달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규가입시 5만원 상당의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농협마트선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오프라인 가맹점과 온누리시장(onnurimarket.co.kr)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농협마트선은 엄선된 국내 고급 농산물 선물세트로 구성돼 있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위기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제도다. 올해 1월 기준 재적 가입자 185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이다.

노란우산 가입시 소득공제 혜택(연 최대 600만원)은 물론 납입 원금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 마련에 용이하고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위기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마련된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이라는 든든한 사회안전망과 함께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입자 혜택 증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CJ대한통운, 장성에 호남권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4만6400㎡ 규모...“투자 논의 진행 단계”

CJ대한통운이 호남권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구축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7일 유통업체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자회사 ‘한국복합물류’의 장성 복합 물

류 터미널 신축에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주력 사업인 택배·이커머스·CL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 택배 상품 분류를 전담하는 자동화 시설인 멀티

포인트(MP) 설비 구축을 골자로 한다. CJ대한통운은 장성군에 4만6400㎡의 복합 물류 단지를 구축하고 곧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새 물류단지는 기존에 가동 중인 장성 호남권허브터미널을 일부 개선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부분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하며, 이를 바탕으로 당일·새벽 배송 서비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전망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장성 물류단지 경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구상중이지만 투자는 어느 हाल하게 진행 중에 있다”며 “착공 시기는 확정할 수 없지만 빠른 시일내에 조성해 호남권 물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iozyb@gmail.com